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7.(금)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7일(금)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재준**	☎ 044-300-7171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이재준 의원, “학교체육 전담과 신설 앞뒀는데, 스포츠클럽 예산 왜 줄었나”

–25일 교육안전위원회 심사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비 감액 근거 따져… 초등 1인 1스포츠 5·6학년 연계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준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10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7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체육인성예술과 신설을 앞두고 학교스포츠클럽과 대회 지원 예산을 줄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명숙 교육국장이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4학년 체육활동을 새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내년도 주요 체육사업의 감액 규모가 2억원에 가깝다며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에 우수선수 육성과 전국대회 지원까지 줄이는 것이 학교체육 활성화 방침에 맞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전국대회 포상금 감액을 두고 학생 훈련과 대회 준비를 맡는 현장

지도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그 지도자들이 힘이 날까요?”라고 반문했다.

김명숙 교육국장은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대회 출전 여비와 포상금 예산을 조정했다”면서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 방안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 ‘4U 어울림 스포츠’의 1인 1스포츠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며, 학생들이 4학년 때 시작한 체육활동을 5·6학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역사교육 예산과 진로교육원 소리나래실 운영 준비도 살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며, 더 많은 학생이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 할 시점에 기존 역사바로알기교육 예산이 빠진 이유를 물었다. 김 국장이 민주시민 역사캠프로 대체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캠프 운영비 7,200만원이면 교당 300만원씩 총 24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며 두 기관에 각각 3,600만원을 편성한 근거와 세부 운영계획을 요구했다.

소리나래실을 두고는 올해 제1회 추경으로 시설을 조성하고도 학생들이 아직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이 기자재를 보강해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당장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을 왜 추경까지 올리면서 서둘렀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향후 체험시설을 조성할 때는 학생들이 완공 직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함께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